

119(화재·구급) 다국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본어로 신고하기가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다음 언어는 119 신고(화재·구급) 시에 통역사를 통한 전화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 이 외 언어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 ① 화재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소방차 혹은 구급차를 요청하려면,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119에 신고해 주세요.
- ② 우선, 소방 지령센터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신 지령원이 통역 서비스로 연결해 드리므로 전화를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③ 신고자, 통신지령원, 통역자에 의한 3자간 통화가 연결되므로 신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간 동시통역 흐름(119 신고 시)

